"류현진, 다저스 최고"…현지 언론 극찬

미국 야구 전문 잡지 베이스볼 아메리카
상승세 자랑하는 3명 선수 중 류현진 거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을 향한 현지 언론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다저스 에이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야구 전문 잡지 베이스볼 아메리카(BA)는 22일(한국시간)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는 3명의 선수를 꼽으면서 미네소타 트윈스 유격수 호르헤 폴랑코, 볼티모어 오리올스 1루수 트레이 맨시니와 함께 류현진의 이름을 거론했다.

"류현진은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나"라고 반문한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류현진은 31이닝 연속 무실점 투구를 기록하고 있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1.52),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0.74), 9이닝당 볼넷(0.6), 삼진/볼넷 비율(14.75)에서 모두 내셔널리그 1위에 올라있다"고 기록을 소개했다.

이어 "2018년부터는 142⅔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1.77을 기록했고, 삼진 148개를 잡는 동안 볼넷 19개만 내줬다"며 "최근 12차례 선발 등판에서 3실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다. 또 최근 5경기 연속 7이닝 이상을 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류현진은 건강했던 최근 두 시즌 동안 사이영 상급 투수였다. 이제는 클레이튼 커쇼, 워커 뷸러가 있는 다저스 투수진 가운데 최고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9경기에 선발 등판해 59⅓이닝을 소화하면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1.52를 기록했고, 탈삼진 59개를 잡는 동안 볼넷 4개만 내줬다. 커쇼는 6경기에서 패배 없이 3승 평균자책점 3.40, 탈삼진 36개, 볼넷 7개의 성적을 거뒀다. 9경기에 선발 등판한 뷸러의 성적은 4승 1패 평균자책점 3.83 탈삼진 46개 볼넷 10개다.

연일 쾌투를 이어간 류현진은 지난주 '이주의 투수'를 수상했고, 이번달 '이달의 투수'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대로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사이영상까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명의 선수로 콜로라도 로키스 좌완 투수 카일 프리랜드, 뉴욕 양키스 왼손 투수 J.A. 햅, 시카고 화이트삭스 1루수 욘더 알론소를 선정했다.

토트넘팬 98.3% "손흥민 지키자"

영국 풋볼 런런, 토트넘 선수 19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토트넘 홋스퍼팬 대다수는 손흥민 없는 팀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영국 풋볼 런던은 22일(한국시간) 토트넘과 관련된 흥미로운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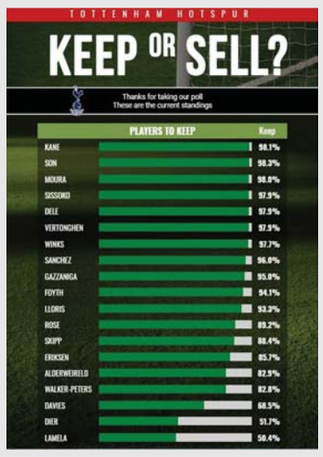
이 매체는 토트넘 선수 19명의 이름을 나열한 뒤 '이들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손흥민은 98.3%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장인 해리 케인의 98.1%를 상회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의 히어로인 루카스 모우라는 98.0%를 받았다.

손흥민을 향한 팬들의 절대적인 애정이 반영된 결과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시즌에는 잦은 대표팀 차출과 케인의 부재에도 20골을 넣으며 팀의 빅4 진입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무사 시소코와 델레 알리, 얀 베르통언은 97.9%를 기록했고 해리 윙크스가 97.7%로 뒤를 이었다.

중원의 핵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예상보다 낮은 85.7%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휘말린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손흥민의 경쟁자로 분류됐던 에릭 라멜라는 50.4%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기태 감독 이어 이대진 코치도 사퇴

KIA 타이거즈, 박흥식 감독대행 체제

KIA 타이거즈 이대진 코치가 구단의 만류에도 팀을 떠났다.

KIA 관계자는 21일 "이대진 코치가 사의를 표했다. 오늘 오전까지 구단은 수락하지 않았다. 오후에 면담을 했지만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김기태 감독에 이어 이대진 코치까지 KIA를 떠나게 됐다.

이 코치는 16일 김 감독이 자진 사퇴하는 것을 본 후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구단에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IA는 박흥식 감독대행 체제로 팀을 꾸리면서 코칭스태프를 개편했다. 이 코치는 잔류군 코치로 이동한 바 있다.

1993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이 코치는 100승 74패 22세이브 평균자책점 3.57을 기록했다. 타이거즈의 레전드다. LG 트윈스와 KIA에서 코치를 지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김서영 "수영, 체격 불리해도 꿀리지 않는다 생각 하게 돼"

광주세계선수권 메달 도전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서영(경북도청)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의 메달권 진입을 새 목표로 내걸었다.

김서영은 21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9 수영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자 일반부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10초18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대회 첫 날인 지난 19일 개인혼영 400m에서 4분38초83을 기록한 김서영은 출전한 두 종목 모두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국제수영연맹(FINA) A 기준기록을 가볍게 충족하며 세계선수권 출전권 확보에 성공했다.

김서영은 "올해 목표였던 세계선수권 티켓을 얻어 기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통해 세계무대의 맛을 본 김서영은 2년 전 세계선수권 개인혼영 200m 준결승에서 '마의 10초대'를 무너뜨리고 결승에 안착했다. 한국 개인혼영 선수가 세계선수권 결승에 오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2분08초34의 대회 신기록으로 라이벌 오하시 유이(일본·2분08초88)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차례 메이저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김서영은 올해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FINA 챔피언스 경영 시리즈에 초청 받아 쟁쟁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국 광저우에서 1차 대회 개인혼영 200m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카틴카 호스주(헝가리)의 바로 뒤를 이었다.

김서영은 "처음에는 나보다 키가 크거나 신체조건이 좋은 선수를 만나면 위축됐다. 작년 아시안게임과 올해 챔피언스 시리즈를 하면서 신체조건이 불리해도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거듭된 성공은 '세계선수권에서도 입상권에 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2년 전 처음 세계선수권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 '몇 초가 나오고 싶다',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때는 부담이 좀 됐다"던 김서영은 "당시 세계선수권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다. 지금은 그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권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2년 전에는 결승 진출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메달권 도전한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도쿄올림픽 준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대회를 50여일 앞둔 현재 김서영은 전담팀 김인균 감독의 지휘 아래 하루 평균 6000~7000m씩 헤엄치고 있다. 일주일에 2번은 그 두 배인 1만2000m 가량을 누비기도 한다. 남은 기간에는 스피드 향상과 단점으로 지적됐던 자유형과 평영 다듬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광주 대회에는 홍보대사인 박태환과 안세현이 모두 나설 수 없다. 안세현은 선발전에서 탈락했고, 박태환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다. 김서영에게 쏠리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김서영은 "아직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대회가 다가오면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잘 준비해 그런 부담도 즐길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